

5. 부인을 손님처럼

퇴계는 21살에 결혼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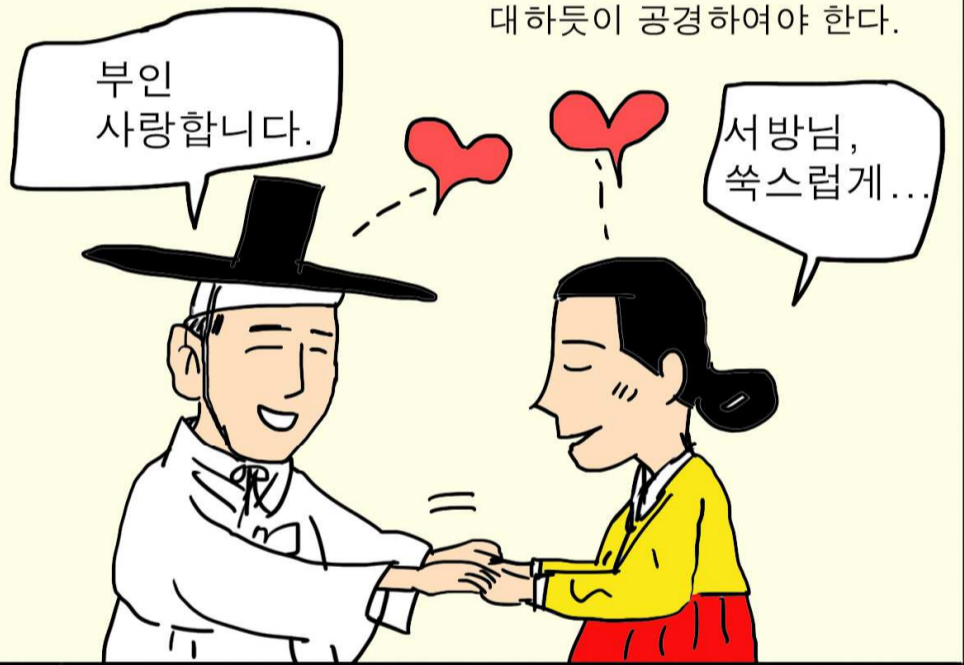


부인은 동갑내기로 진사 허찬의 딸이었다.



퇴계는 부인을 존중해 상경여빈相敬如賓의 정신으로 사랑하였다.

*상경여빈: 서로 늘 손님을 대하듯이 공경하여야 한다.



아닙니다.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이지만 늘 손님을 대하듯 부부간이라도 반드시 존대어를 써야 합니다.

알겠습니다, 서방님.



특히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줄 때 집안에 도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.

제가 서방님을 존중하는건 당연하죠.



그래서 퇴계의 가정은 늘 화목했다.



여보 오늘은 처가에 다녀옵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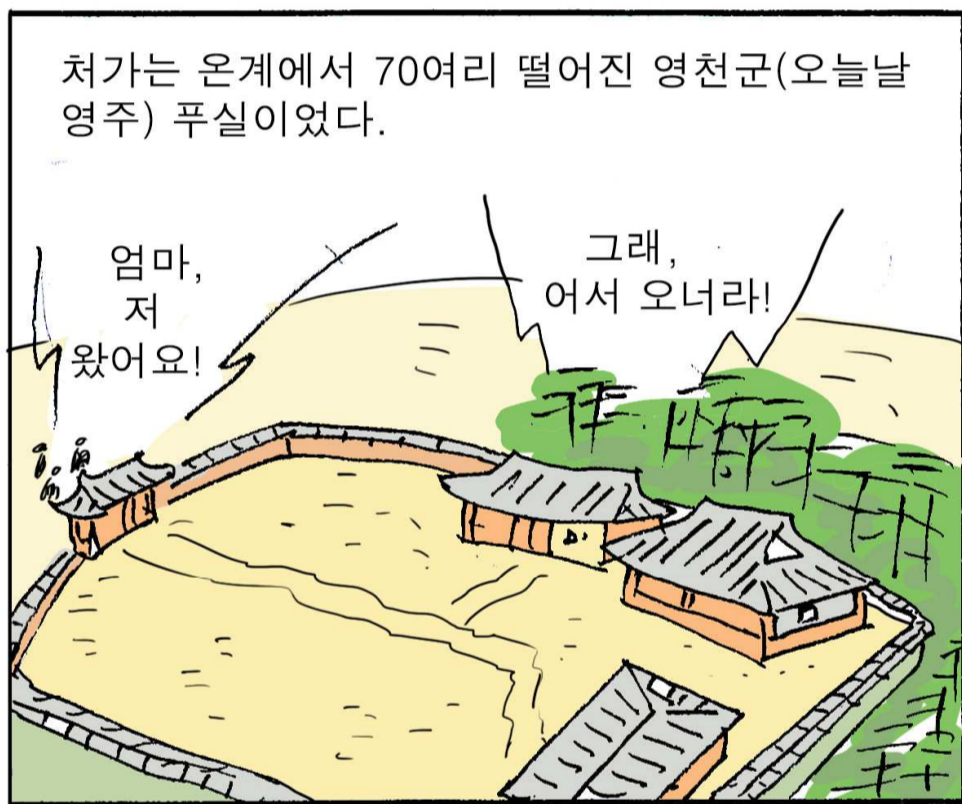
예

처가는 온계에서 70여리 떨어진 영천군(오늘날 영주) 푸실이였다.



오늘 이서방이 온다는군요.

돌쇠한테 씨암닭 서너마리 잡으라 하구려.



엄마, 저 왔어요!

그래, 어서 오너라!

부인의 친절은 재산이 넉넉하였다.



그간 별고 없으셨는지요?

그래 가내 두루 평안하신가?



올 때 봤더니 자네 말이 너무 쇠약하던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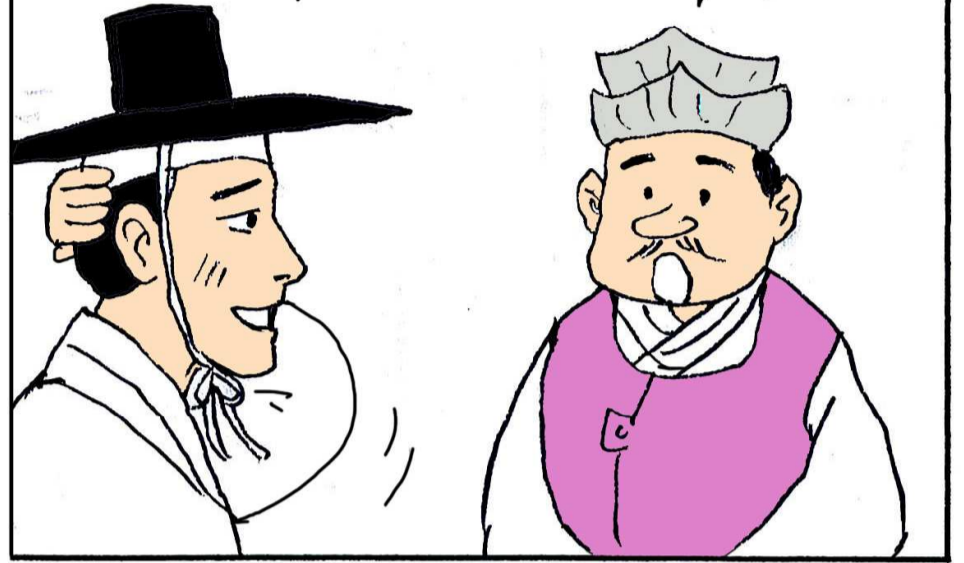
좀 늙었지만 아직은 탈만 합니다.

아닐세, 마굿간에 젊고 튼튼한 말이 있으니 갈 때 갈아타고 가게나.



장인어른, 전 괜찮습니다.

괜찮기는 이 사람아!



허씨 집안 사위가 비리비리한 말을 타고다닌다고 소문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?



여보, 아버님이 주시는 거니 못 이기는 척 받으세요.

그래도 아니 되오.



퇴계는 장인의 선심에도 불구하고 타고 간 말을 도로 타고 왔다. 이렇듯 퇴계는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.



이서방 고집이 보통 아니구나.